



중부담-중복지 국회세미나
“한국복지의 길 : 중부담-중복지 체제로의 전환 구상 및 과제”

한국 저부담-저복지 기조의 전망과 한계

2016. 8. 11

원종욱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0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전망

02

중부담-중복지(OECD 평균)

03

국가 재정기준선 설정

04

결 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전망

- ▶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지출
2011년 GDP 대비 9.0%, 2050년 GDP 대비 26.6%로 추계(현행 제도 유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장기추계 결과

(단위 : GDP 대비 %)

	2009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GDP 대비 %	9.4	9.0	11.0	12.9	15.1	17.9	20.1	22.6	25.3	26.6

주: 2009년, 2011년은 실적치(OECD. Stat.)이며, 2011년은 가장 최신의 실적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사회보장장기재정추계; OECD stat.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전망

- ▶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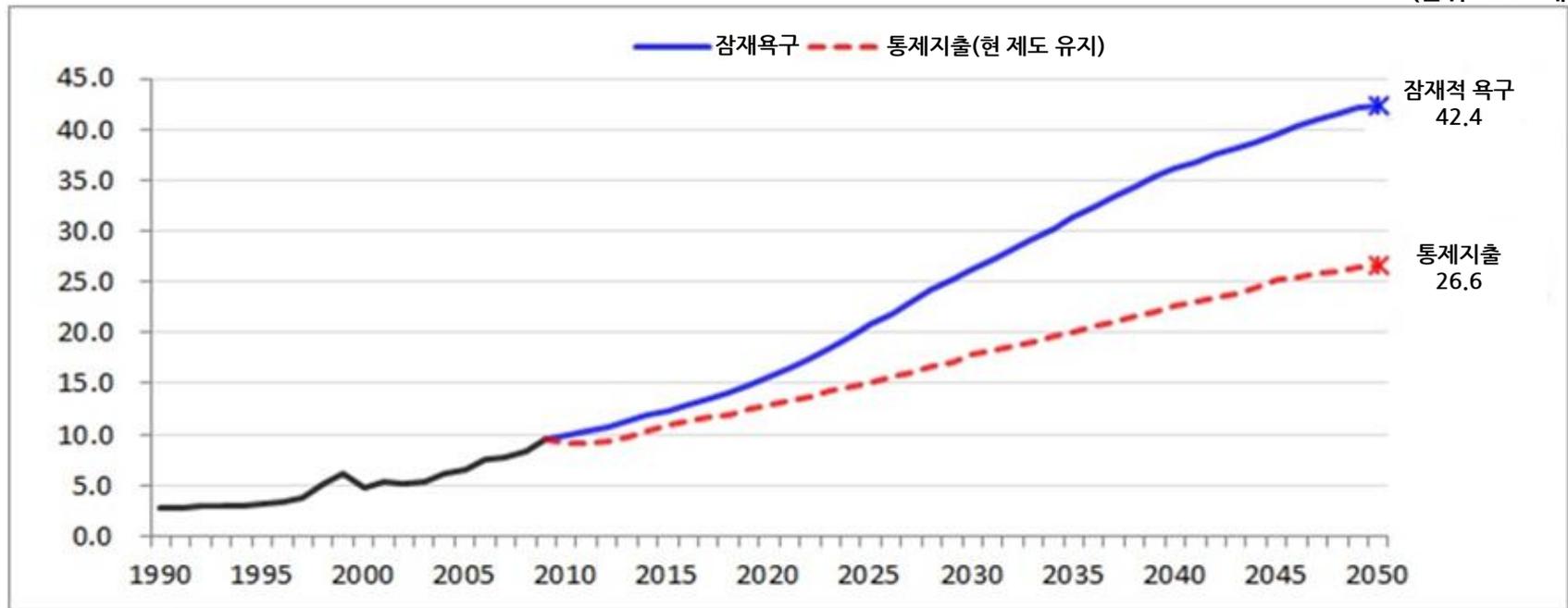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전망

▶ 복지지출의 잠재적 욕구 수준과 통제지출(현 제도 유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요와 공급선 전망

(단위 : GDP 대비%)



주: 1) 2011년은 가장 최근의 실적치임(OECD. Stat.)
2) 공급(점선)은 보사연의 재정추계결과임.
3) 수요(실선)은 ARIMAX(1,0,0) 시계열 모형에 의해 추계된 결과임.
자료: 고재이 외(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중부담-중복지(OECD 평균)

OECD 부담과 지출 간 균형수준계산을 위한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추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추계치 비교

(단위 : %)

년도	OECD 산술평균 (전망)	OECD 중앙값	한국 재정추계결과
2015	21.95	23.16	11.00
2020	23.30	24.70	12.90
2025	24.69	26.50	15.10
2030	26.08	28.00	17.90
2035	27.30	29.50	20.10
2040	28.20	30.60	22.60
2045	28.90	30.90	25.30
2050	29.27	31.25	26.60

주 : 기존 재정추계결과는 2013년 사회보장재정추계임의 결과이며, OECD 산술평균 전망은 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 것임
 자료 : OECD Stat.를 바탕으로 계산 ; 2013년 사회보장재정추계.

중부담-중복지(OECD 평균)

OECD 국가(평균)의 국민부담율 추계(~2050)

OECD 평균 국민부담율 실적치와 전망치

(단위 : GDP 대비 %)

Year (실적치)	평균 국민부담율	Year (추계치)	평균 국민부담율
1965	24.80(한국 : 24.3%, 2013년)	2015	34.34
1970	26.80	2020	34.62
1975	28.60	2025	34.88
1980	30.10	2030	35.12
1985	31.70	2035	35.34
1990	32.20	2040	35.55
1995	33.60	2045	35.74
2000	34.30	2050	35.92
2005	34.00		
2010	32.80		
2014	34.28		

주 : 국민부담율=총조세수입(Total tax revenue)

자료 :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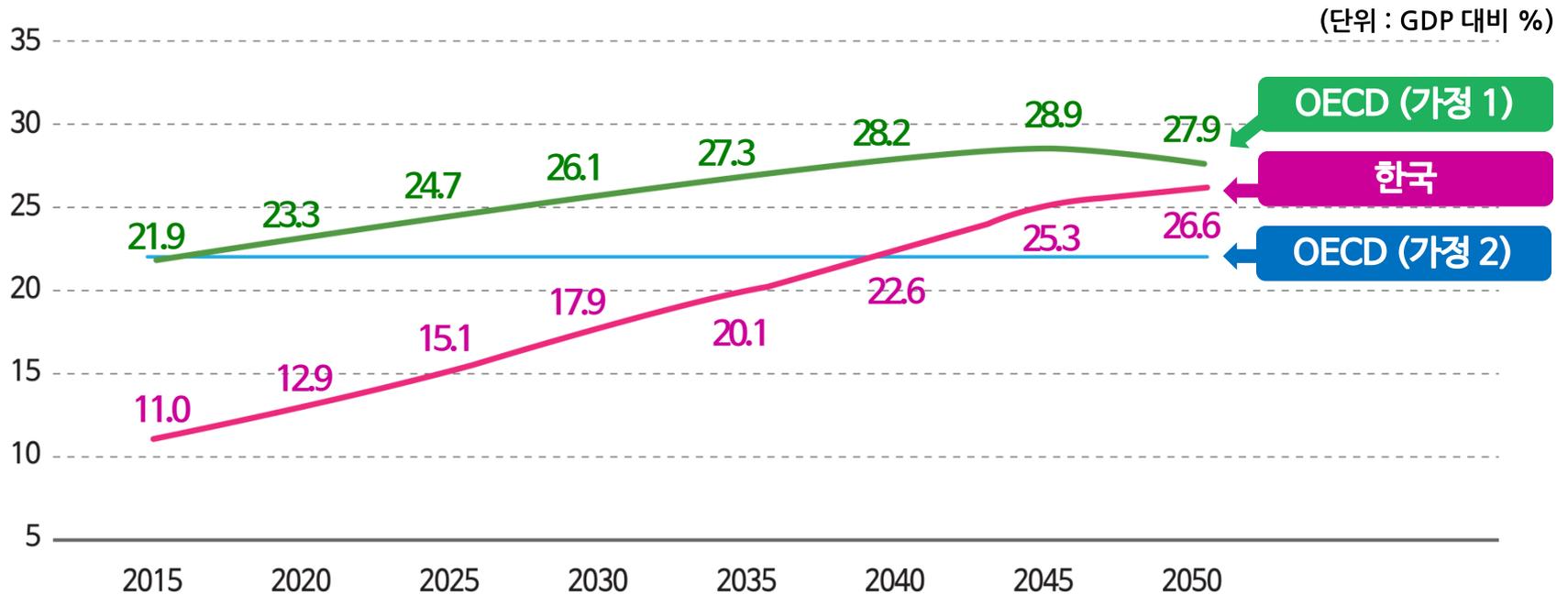
중부담-중복지(OECD 평균)

▶ 우리나라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치 비교

가정1 OECD 평균이 과거 추세와 같이 지속 증가(합리적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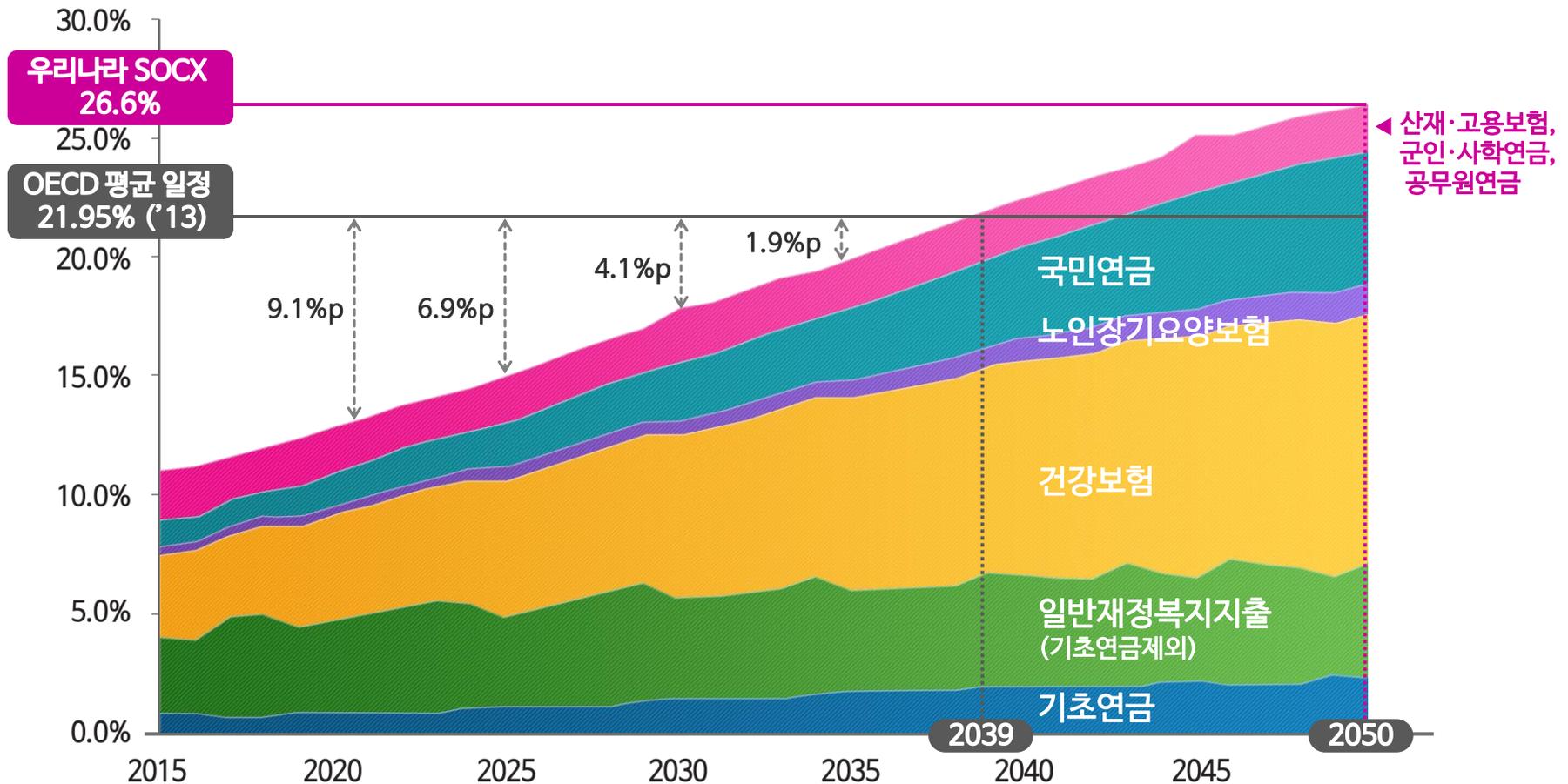
가정2 OECD 평균이 2013년 기준(21.95)으로 일정하게 유지

OECD 평균, 중앙값, 우리나라 SOCX 지출 비교 추세



중부담-중복지(OECD 평균)

-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지출 증가는 자연증가율이 높은 사회보험 부문이 아닌 일반재정복지지출(재량적 복지지출)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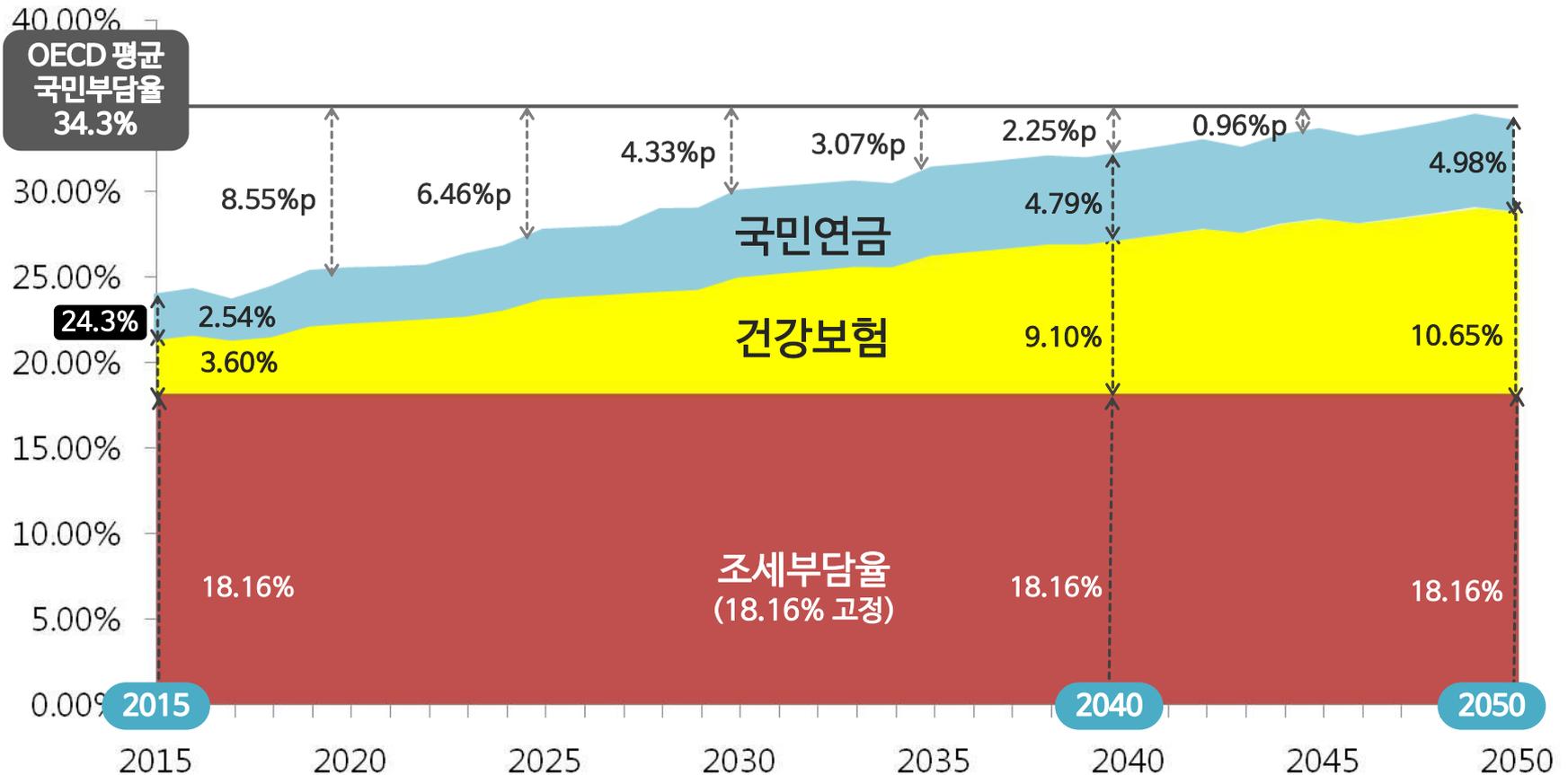


중부담-중복지(OECD 평균)

▶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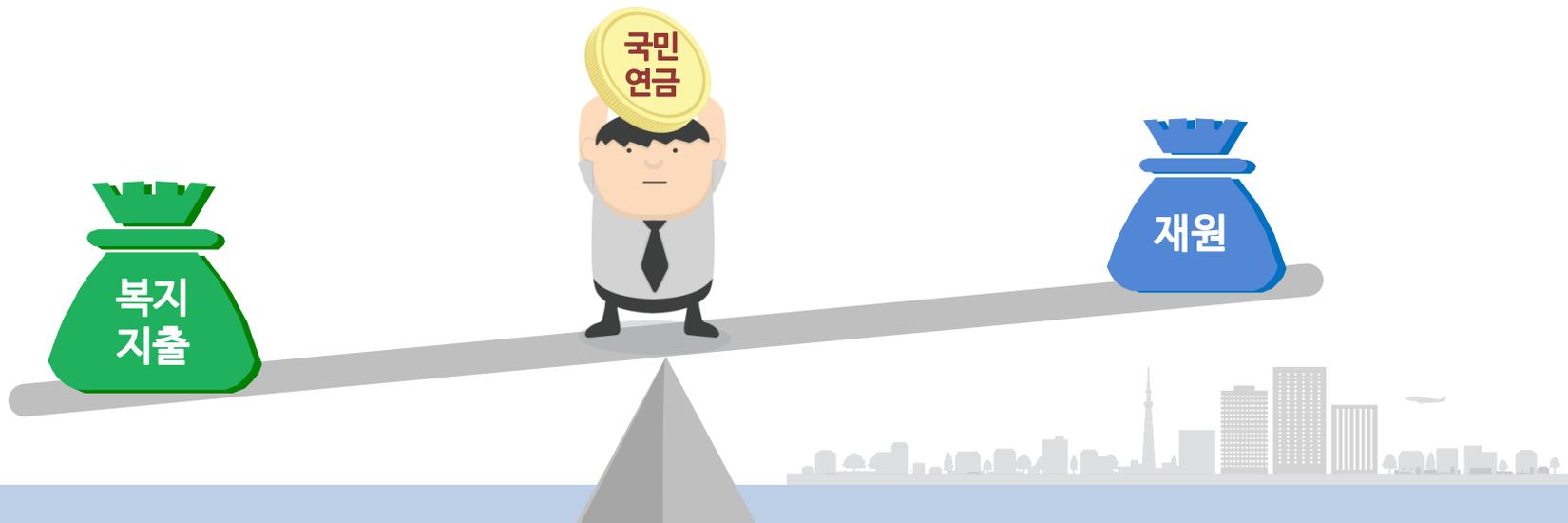
- 9%(2015-2017) → 11%(2018-2022) → 13%(2023-2027) → 16%(2028년 이후~)

▶ 2050년 OECD 현재 평균 도달



중부담-중복지(OECD 평균)

- ▶ 복지지출은 증가하나 이를 감당할 재원이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는 문제
 - 우리나라의 최근 지출과 부담 추이, 사회보장재정추계 자료를 고려해 볼 때, 지출과 부담의 이행경로는 OECD 평균으로 수렴하기보다는, 남유럽국가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음
 - 국민연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과 부담구조는 상당한 불균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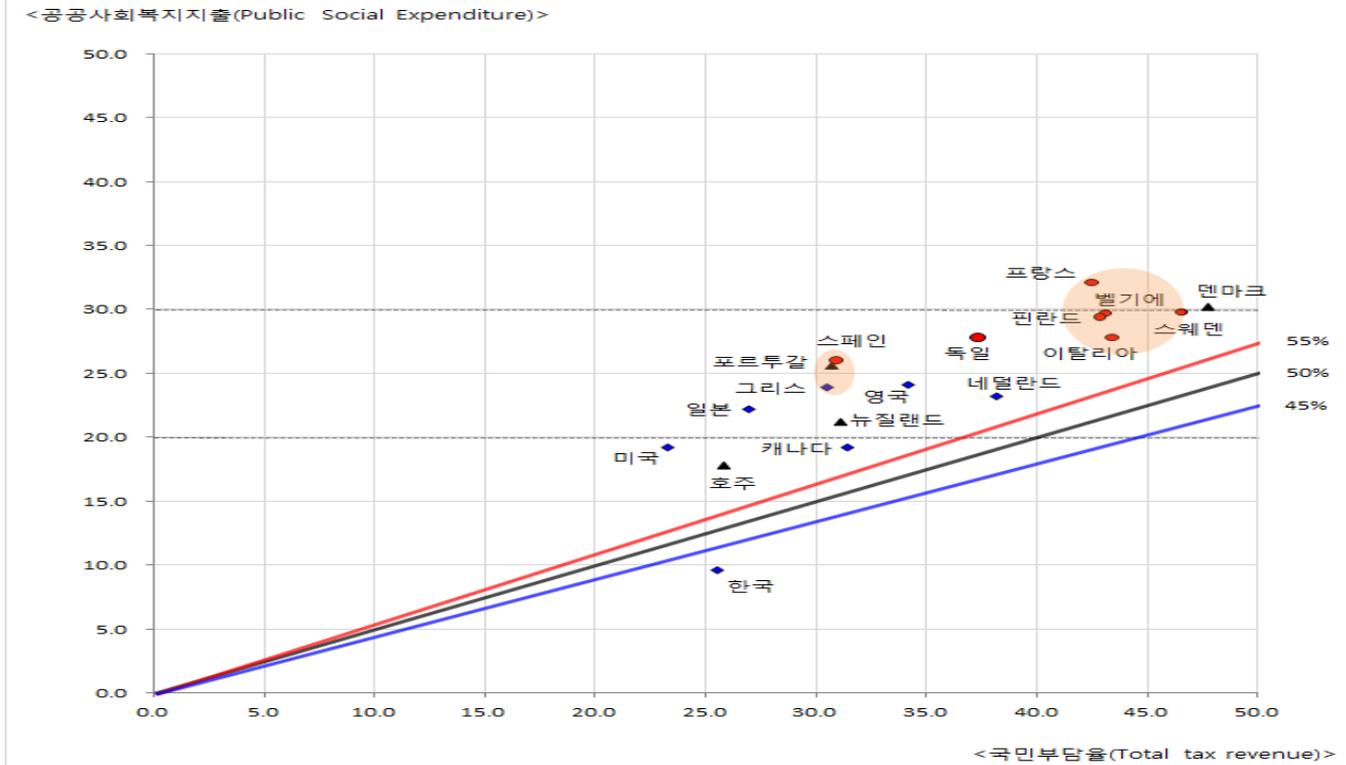
국가 재정기준선 설정

▶ 규범적 균형재정선

정의 : 일반정부의 지출,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

가정 : 국민부담으로 일반정부지출 전체를 충당함을 가정

규범적 균형재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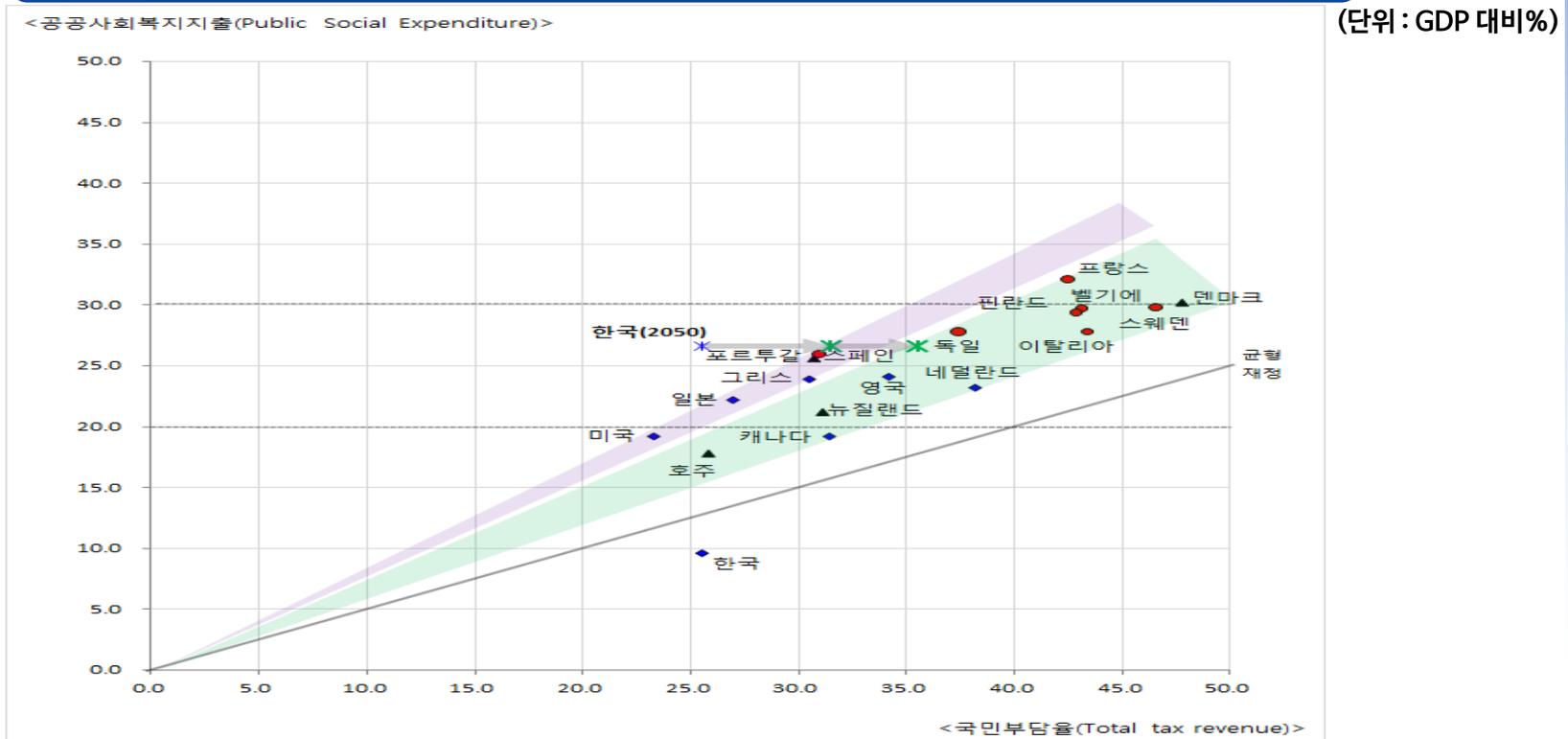
국가 재정기준선 설정

▶ 상대적 균형재정선(영역)

정의 :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알려진 국가의 부담과 지출관계를 나타내는 수준

특징 : 국가군별 관찰 가능

국가군별 상대적 균형재정선



국가 재정기준선 설정

- ▶ OECD 주요 국가의 일반정부총지출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09)
국가군(사회복지지출이 일반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사한 군)으로 살펴봄

OECD 주요국가의 일반정부총지출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09)

(단위: GDP 대비%)

구분	국민부담	일반정부총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		재정적자	
	(GDP대비%)	(GDP대비%)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대비%)	(GDP대비%)	
	(A)	(B)	(C)	(D)	(E)=(A-B)	-2011
독일	37.4	48.2	27.8	57.8	-10.8	-8.2
스페인	30.9	46.3	26	56.1	-15.3	-13.6
스웨덴	46.6	54.9	29.8	54.3	-8.4	-7.3
이탈리아	43.4	51.9	27.8	53.6	-8.5	-6.8
핀란드	42.8	56.1	29.4	52.5	-13.3	-11.4
평균	40.9	52.6	28.9	55.2	-11.6	-9.8
덴마크	47.8	58.1	30.2	52.1	-10.3	-10
포르투갈	30.7	49.8	25.6	51.4	-19	-16.3
뉴질랜드	31.1	42.3	21.2	50.2	-11.2	-11.2
호주	25.8	36.9	17.8	48	-11.1	-9.8
평균	33.9	46.8	23.7	50.4	-12.9	-11.8
영국	34.2	51.3	24.1	47	-17.1	-12.2
미국	23.3	42.8	19.2	45.9	-19.6	-17.5
일본	27	41.9	22.2	41.7	-14.9	-13.2
한국	25.5	33.1	9.6	29	-7.6	-4.3
평균	30	45.6	20.2	42.3	-15.5	-12.7

국가 재정기준선 설정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전망

2050년 독일과 유사한 상대적 균형재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율이 GDP대비 38% 증가 요구, 지출에 비해 부담을 덜 하는 스페인, 포르투갈을 따를 경우 33~34% 증가 요구

국가별 균형재정 상황을 따를 경우 2050년 우리나라 필요 국민부담률

(단위 : GDP 대비%)

균형재정 기준 -2011	2050년 SOCX (한국)	GDP대비 일반정부지출 (한국) (a)	재정 적자율 (b)	재정적자 (c=a×b)	필요 국민부담률 (d=a-c)	현행 국민부담률 (e)	국민부담률 인상분 (f=d-e)
독일	26.6	46.02	-17.01	-7.8	38.22	25.5	12.7
스웨덴	26.6	48.98	-13.3	-6.5	42.48	25.5	17
스페인	26.6	47.41	-29.37	-13.9	33.51	25.5	8.0
핀란드	26.6	50.66	-20.32	-10.3	40.36	25.5	14.9
덴마크	26.6	51.05	-17.21	-8.8	42.25	25.5	16.8
포르투갈	26.6	51.75	-32.73	-16.9	34.85	25.5	9.3
뉴질랜드	26.6	52.98	-26.48	-14	38.98	25.5	13.5
호주	26.6	55.41	-26.56	-14.7	40.71	25.5	15.2
영국	26.6	56.59	-23.78	-13.5	43.09	25.5	17.6
미국	26.6	57.95	-40.89	-23.7	34.25	25.5	8.7
네덜란드	26.6	59.11	-21.98	-13	46.11	25.5	20.9
그리스	26.6	59.9	-36.67	-22	37.94	25.5	12.4
캐나다	26.6	61.43	-23.87	-14.7	46.73	25.5	21.2
일본	26.6	63.79	-31.5	-20.1	43.69	25.5	18.2

국가 재정기준선 설정

▶ 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

국민부담이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지출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50년 “중부담-중복지”로 진입

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

(단위 : GDP 대비%)

재정균형기준	2050년 부담/지출		복지레짐	비고
	국민부담	지출		
이탈리아	43.12	26.6	고부담-중복지	비해당
스웨덴	42.47	26.6		
핀란드	40.37	26.6		
벨기에	39.68	26.6		
독일	38.19	26.6	중부담-중복지	달성시기의 합의 (부담, 지출)
프랑스	37.30	26.6		
스페인	33.49	26.6	저부담-중복지	비해당

결론

- ▶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복지수준의 증대가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은 OECD 국가에 비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출 증가가 진행될 전망

GDP 대비 SOCX 지출 20% 도달 시점 직전의 GDP 평균성장률과 국민부담률

(단위: %)

구분	GDP 대비 SOCX 20% 도달시점	국민부담률			
		직전 5년간	직전 10년간	직전 5년간	직전 10년간
북유럽	1980	40.1	38.5	10.27	10.13
영미	2012	28.3	29.0	2.64	4.25
남유럽	1999	32.6	31.6	4.92	5.0
유럽대륙	1980	37.9	36.1	10.0	10.32
일본	2009	27.7	26.9	3.76	3.4
OECD	2009	33.9	33.9	5.6	5.13
한국	2035	-	-	2.28	2.06

주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4.3%임.
 자료: OECD Stat.;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보건사회연구원 SOCX 추계자료.

결론

- ▶ **목표 1** 2030년에 OECD SOCX 지출 현재 평균(2015년 21.95%) 도달
2050년 30.7%로 수렴 가능

⇒ 중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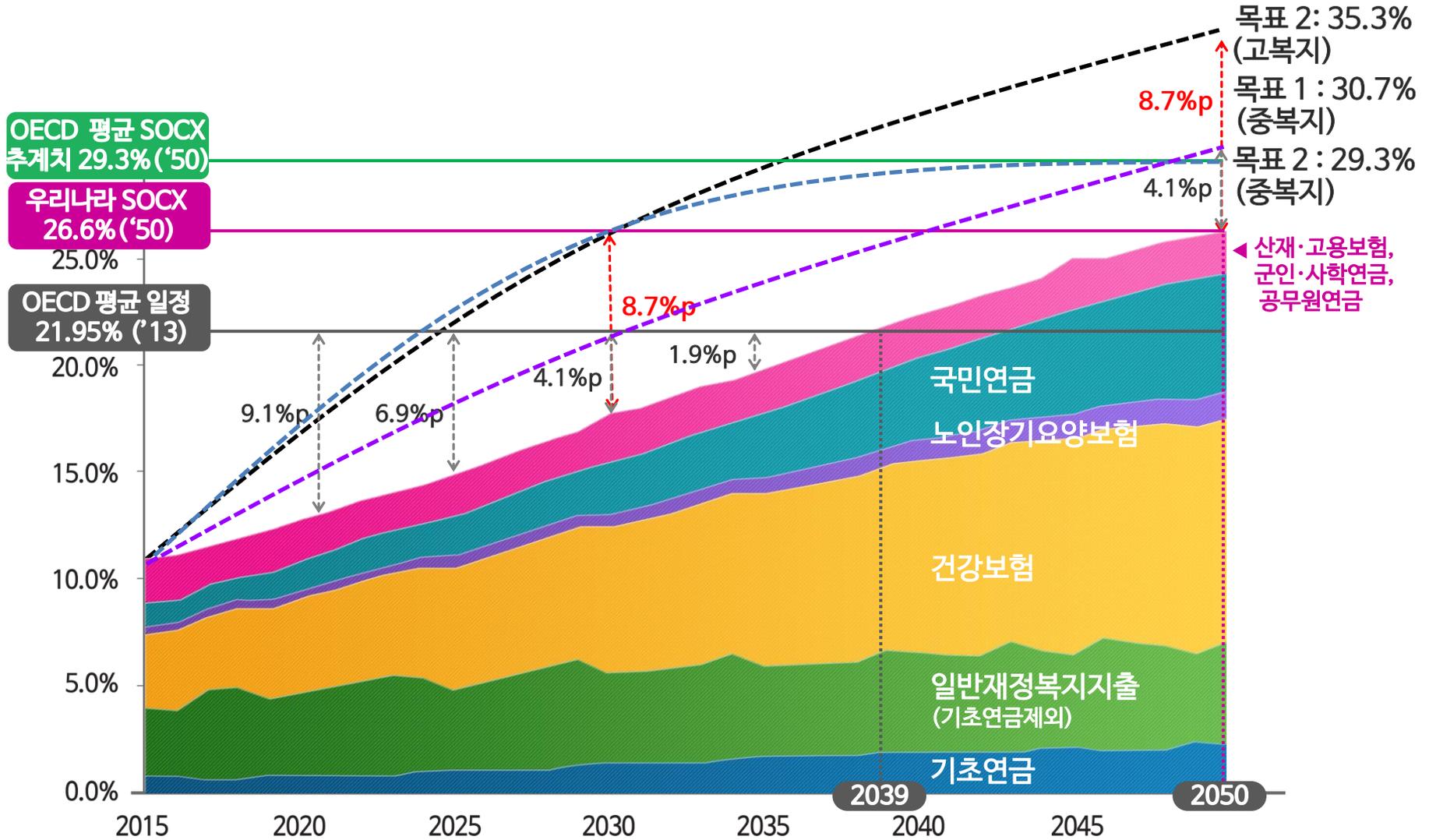
- 목표 2** 2030년에 OECD 당시 SOCX 지출 평균(2030년 26.08%) 도달
2050년 29.3%(OECD 평균) 수렴(2030년 이후 지출 통제 가능 시)

⇒ 중복지

2050년 35.3%로 수렴(2050년 이후 지출 통제 불능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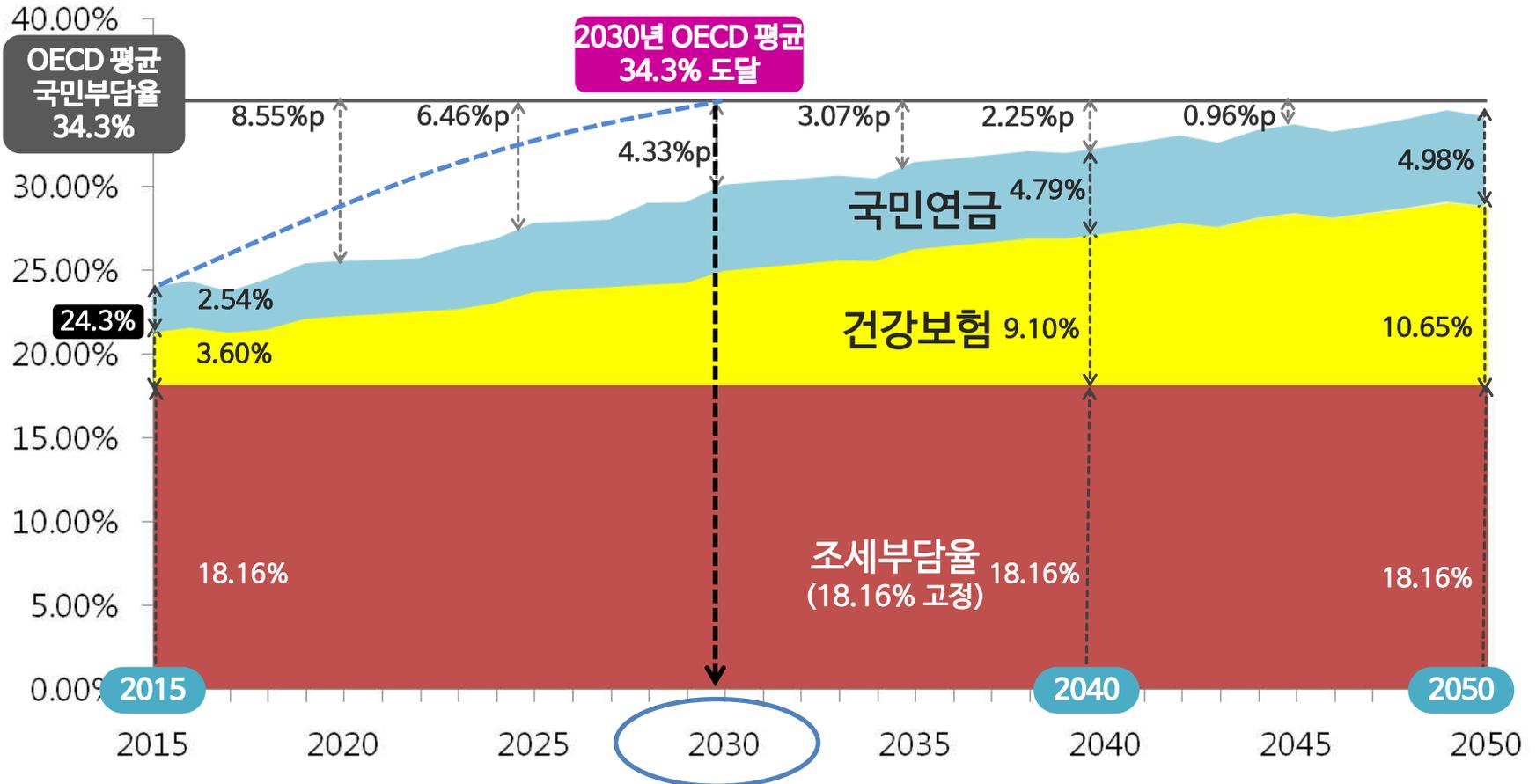
⇒ 고복지

결론



결론

- ▶ 중부담 : 2030년 국민부담율이 2015년 OECD 평균인 34.3%까지 증가 필요(10%p)
 - 국민연금보험료 인상(6%)+건강보험료 인상(? %)+조세수입(? %)로 구성



결론

점검 및 전망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지표 변화에 대한 점검과 전망

- OECD 국가 사회지표와의 비교 → 사회 지표 제고 수준에 선택과 집중
- 경제관련 지표 점검 → 재정부담수준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목표 수립

지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의 목표 수립 필요

[빈곤율(노인)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필요]

- 사회보험보다는 일반재정 복지지출을 통해 단기적 사회지표 개선을 도모
- 기초생활보장 대상범위 확대(효과)를 통한 빈곤율 해소



감사합니다.